

# 3루 주전→야대표→유격수 정착 사령탑의 작심 로드맵에 응답할까

KIA 타이거즈 애리조나 스프링캠프 관전포인트 2년차 김도영...“장차 유격수 맡아야”



KIA 타이거즈의 애리조나 스프링캠프의 관전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2년차 김도영(19)의 도약 여부이다. 작년 시범경기 타율 1위에 올라 뜨거운 관심과 ‘천재루키’ 소리까지 들었다. 만원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개막전 리드오프로 출전했으나 무안타 굴욕을 당했다. 결국 한 달만에 백업맨으로 밀려났다.

김중국 감독은 이후에도 백업맨으로 활용했다. 발이 빨라 주루능력이 뛰어나고 수비력도 점점 안정감이 생겼다. 대주자와 대

수비로 출전 기회를 부여했다. 가끔 선발라인업에 이름을 넣기도 했다. 한 번도 1군 엔트리에서 빠지지 않았다. 타격도 점점 적응력을 보이기 시작했다. 2023 연봉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랐다.

아직 백업 지리표를 떼지 못했다. 3루 주전은 유지적이다. 트레이드 이적생 변우혁까지 가세해 경쟁이 더욱 심해졌다. 김 감독은 3루수와 유격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도영이 3루수 주전이 되면 여러가지로 플러스가 된다. 타격에서 조금만

잘하면 수비력과 주력이 있으니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김도영의 주전 도약을 주문한 이유가 또 있다. 아시안게임 대표이다. 작년처럼 백업이라면 태극마크는 언급생심이다. 타격능력을 끌어올려 주전이 되면 대표팀 리드오프로 후보까지 오른다는 희망이다. 김 감독은 “그래서 도영이가 올해 잘해야 한다. 작년 아시안게임이 연기된 것은 도영에게는 큰 기회이다”며 웃었다.

김 감독은 한 발 더 나갔다. 장기 플랜이다. “도영이를 당분간 3루수로 쓰겠지만 장차 유격수를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언젠가는 유격수를 맡아야 팀이 강해진다는 뜻이다. 올해 34살이 되는 김선빈의 후계를 대비한 내야진 밀그림이다. 김도영이 유격수를 맡으면 박찬호가 2루수로 이동하는 그림이다. 1루와 3루 코너 내야는 황태인과 변우혁 등 거포들이 포진하는 꿈의 내야진이다.

그만큼 김도영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감독의 밀그림대로 도약하고 주축이 된다면 최상의 시나리오이다. 팀의 공수주 전반에 걸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낳는다. 데뷔 시즌은 많이 아쉬웠다. 애리조나 스프링캠프에 임하며 마음가짐도 남다른 것이다. 김도영의 두 번째 시즌이 창대하다면 KIA는 강자가 될 수 있다. 이슬비기자



## 황희찬, 자책골 유도했지만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

황희찬, 전반 5분 상대 자책골 유도  
울버햄튼, 리버풀에 3-0 완승

‘황소’ 황희찬(울버햄튼)이 다시 한 번 리버풀을 상대로 강한 면모를 과시했지만 부상으로 그라운드를 떠났다.

황희찬은 4일 자정(한국시간) 영국 울버햄튼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버풀과의 2022~2023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22라운드에서 선발로 출전해 경기 시작 5분 만에 선제골을 유도했다.

상대 측면을 침투한 황희찬은 후반 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정면으로 낮은 크로스를 보냈다. 행운이 따라 상대 조엘 마틴의 다리에 맞은 공이 왼쪽 골포스트를 때린 후, 골로 이어졌다.

사실상 황희찬의 골로 인정해도 이상하지 않을 장면이었다. 공식 기록은 마틴의 자책골. 이 골을 앞세워 울버햄튼은 3-0 완승을 거

두며 5승(6무1패 승점 20)째를 신고했다. 15위로 올라섰다.

그동안 황희찬은 리버풀을 만나면 유독 강한 모습을 보였다.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 시절인 2019년 10월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리버풀을 상대로 1골 1도움을 올렸다.

유럽 무대에서 황희찬의 이름을 널리 알린 경기다.

지난달에는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64강전에서 리버풀전에서 골을 기록하며 2-2 무승부로 재경기를 이끌었다.

그러나 황희찬은 이날 부상으로 전반 막판 그라운드를 떠났다. 전반 39분 전력으로 달리다 오른쪽 허벅지 뒷근육을 잡았다. 결국 전반 42분 아다마 트라오레와 교체됐다.

등장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걸어서 나갔지만 살짝 절뚝거리며 불편함을 느꼈다. 울버햄튼 팬들은 박수로 황희찬을 위로했다.

뉴스

## ‘WBC 대표팀 조기 합류 불발’ 오타니, 3월 1일 일본으로

3월 3일께 일본 도착할 듯...한일전 일주일 앞두고 대표팀 합류



오타니 쇼헤이(LA 에인절스)와 구리야마 히데키 일본 야구 대표팀 감독.

‘야구천재’ 오타니 쇼헤이(29·LA 에인절스)가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시(WBC) 한일전을 약 일주일 앞두고 일본 대표팀에 합류한다.

AP통신에 따르면 메이저리그(MLB) 에인절스의 페리 미나시안 단장은 5일(한국시간) “오

타니가 WBC 출전을 위해 (미국 현지시간으로) 3월 1일 미국을 떠나 일본으로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타니는 3월 3일을 전후해 일본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컨디션을 조율하며 WBC

출전을 준비한다.

일본 야구 대표팀은 3월 9일 중국과 WBC 본선 1라운드 첫 경기를 치른 뒤 3월 10일 한일전에 나선다.

오타니의 정확한 합류 시점은 미정이다. 대회 직전 치러지는 WBC 평가전 출전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일전에 등판 여부도 아직은 미지수다. 한국전을 일주일 앞두고 대표팀에 합류하는 만큼 등판도 가능할 전망이다.

MLB에서 성공적으로 투타 겸업을 이어가는 오타니는 WBC에서도 ‘이도류’를 선보일 참이다.

AP통신은 “WBC에서 오타니는 원하대로 할 수 있다. 투타 겸업을 할지는 전적으로 오타니와 일본 대표팀의 결정에 달렸다”고 전했다. 미나시안 단장은 “오타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필요할 때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 대표팀은 보험금 납부를 감당하기로 하는 등 메이저리거의 조기 합류를 위해 애를 썼다.

그러나 에인절스 구단은 오타니의 대표팀 조기 합류를 허용하지 않았다.

오타니는 미국 애리조나주 템피 디아블로 스타디움에서 진행되는 소속팀 에인절스의 스프링캠프에 참가하고, MLB 시범경기에 한 차례 등판한 뒤 일본 대표팀에 합류할 예정이다.

## 김하성 “3루수로 뛰면 ‘김차도’로 불러주길”

내야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팬들 앞에서 팀 내 주전 3루수 매니 마차도(31)와 친분을 뽐내면서 ‘김차도’라고 불려달라는 너스레를 떨었다.

김하성은 지난해 팀의 주전 유격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부상, 징계 등으로 시즌을 통째로 날리면서 주전 유격수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올해에는 대부분의 경기에 2루수로 나선 전망이다. 샌디에이고가 이번 겨울 11년, 2억8000만달러를 투자해 메이저리그(MLB) 최정상급 유격수 샌디 보가츠를 영입했기 때문이다.

김하성은 포지션 변경을 받아들일겠다는 입장이다. ‘김차도’라는 말까지 먼저 꺼내면서 MLB 최정상급 3루수 마차도를 닮겠다는 의지

도 드러냈다.

MLB닷컴의 샌디에이고 담당 AJ 카사벨 기자는 5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팻파크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팬페스트를 취재한 후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김하성이 팬들을 향해 한 발언을 전했다.

김하성은 “이번 시즌에 대부분 2루수로 뛸 것”이라고 들었다면서 “3루수로도 뛸 것 같은데 3루수로 나서게 되면 ‘김차도’로 불렸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마차도는 MLB의 ‘특급 3루수’다. 올스타에 6차례 선정됐고, 지난해 각 포지션별 최고 선수들로 구성하는 올 MLB 퍼스트팀에 이름을 올렸다.

김하성은 MLB에 입성한 2021년 이래 종종

마차도와 친분을 자랑했다.

김하성은 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마차도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김차도’라는 단어로 정상급 내야수로 올라서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이날 팬페스트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것은 타티스 주니어였다.

지난해 손목 부상으로 전반기를 날린 타티스 주니어는 재활 중에 받은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인 클로스테발에 양성 반응을 보여 8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6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소화한 타티스 주니어는 올 시즌 초반 20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타티스 주니어는 “신뢰를 되찾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회할 기회를 얻고 싶다”며 “몸 상태는 좋다. 스프링캠프에서 모든 훈련을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 포지션도 내야와 외야 모두 뛠 수 있다”고 말했다.



## “은퇴는 머릿속에 없다”...오승환, 400SV 향해 전진

일본 매체와 인터뷰 통해 각오 밝혀

“은퇴는 머릿속에 없다.”

‘끝판대장’ 오승환(41·삼성 라이온즈)이 일본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번 시즌 각오 등을 밝혔다. 스포츠지 아넥스는 4일 오승환과 인터뷰를 전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삼성의 스프링캠프에 한창인 오승환을 현지 매체들이 찾았다.

오승환은 ‘수호신’으로 일본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투수다.

그는 KBO리그를 거쳐 2014시즌을 앞두고 일본프로야구에 진출, 한신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2시즌을 뛰었다.

한신 입단 첫 해 64경기 2승4패 39세이브 평균자책점 1.76을 작성했고 이듬해 63경기 2승3패 41세이브 평균자책점 2.73을 기록하며 2년 연속 구원왕에 올랐다.

이후 미국 메이저리그로 진출했던 오승환은 한(370)·미(42)·일(80) 통산 492세이브를 기록하고 있다.

오승환은 “한·미·일 통산 500세이브에는 8개밖에 안 남았지만, KBO리그 통산 400세이브까지는 30개가 남아있다. 400세이브를 목표로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기록을 신경 써서 훈련하거나 경기를 하지는 않는다. 그보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경기하면 기록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해 매일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승환의 동갑내기 친구이자 역시 한국과 미국, 일본에서 뛰었던 이대호는 지난

시즌을 끝으로 은퇴했다.

오승환은 아직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을 계획이 없다. 오승환은 “몸이 안 좋으면 은퇴하겠지만, 전혀 몸 상태가 떨어지지 않았다. 은퇴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올 시즌을 기대하고 있을 뿐”이라며 “은퇴는 머릿속에 없다”고 강조했다.

선수로서 황혼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마무리 투수로 위용을 뽐내고 있는 그는 투구 스타일에 대해 “조금 달라졌다. 나이에 맞게 바뀌어 한다. 한신 때와 지금은 차이가 있다”며 “구종은 두 개 정도 늘었다. 투심과 슬라이더를 구속에 따라 돌려 나눠 던진다. 작년부터 커터 비율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신 시절 한술밥을 먹었던 후지나미 신타로(오르랜드 에슬레틱스)에 조인도 건넸다. 후지나미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오르랜드와 계약, 바리도 도전에 나섰다.

메이저리그 선배인 오승환은 “한신팬, 팀 관계자의 기대보다 후지나미의 성적이 좋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미국에 가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힘을 실어주고 “팀 분위기를 파악해 선수들과 사이 좋게 지내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신과의 인연에도 가능성을 열어놨다. 오승환은 “한신 코치를 등 일본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기회가 된다면 나도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환은 “한신 코치를 등 일본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기회가 된다면 나도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환은 “한신 코치를 등 일본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기회가 된다면 나도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환은 “한신 코치를 등 일본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기회가 된다면 나도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